

내고장 일꾼



임택 동국정장은 8일 오후 3시 접견실에서 '2018년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관내 마을기업 6개 업체와 청년취업지원사업 약정식을 체결한다.



김배내 남구청장은 8일 오후 5시 월산동달미새들마을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정도를 점검한다.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조성

부서간 소통·협업 참여 활성화

광주 북구가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부서간 소통, 협업 및 참여 활성화로 조직문화 변화를 유도한다.

7일 북구에 따르면 ▲효율적으로 일하기 ▲활력있게 일하기 등 2대 분야 8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관행 및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근무시간 몰입하기'와 모바일 전자결재, 원격근무시스템 사용 확대 및 영상회의의 시스템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보고서 작성 간소화 및 단순 전달식 회의 지양, Triple S(간결하게·핵심만 명확히·적기에 빠르게) 캠페인 전개, 회의 소요시간 사전예고제 실시 등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보고 및 회의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간 협업과제 추진에 따른 협업 포인트제 운영, 업무관련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으로 부서별 칸막이 없는 협업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직원 아이디어 컨퍼런스 공모' 실시, 동료 직원들과 자기계발 등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각종 연구회 운영을 지원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소통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무더운 여름 가까운 산사로 떠나요”

10월까지 '원효사, 무등산을 품다II' 주제 체험·탐방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다양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도심에서 가까운 전통 산사를 찾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7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10월까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무등산의 천년고찰 원효사에서 전통 산사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이 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정신유산을 대중화·세계화해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구가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북구는 '원효사, 무등산을 품다II'를 주제로 무등산에 위치한 원효사를 중심으로 '체험 한마당', '마당극 퍼포먼스', '무등산 보물찾기 여행'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원효사 체험 한마당'은 야외 산사 앞마당 잔디밭에서 무등산 깃대종·장식용 연꽃송이 만들기, 비누로 만드는 범종과 동부도, 사찰간식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마당극 퍼포먼스'로는 원효사 창건설화 마당극인 '원효, 무등을 꿈꾸다'를 광주·전라도 대표 놀이패 '신명'이 나서 무등산과 원효사에 얽힌 재미난 설화와 다양한 지역 문화재를 소재로 지역특화형 공연을 펼친다.

단순히 문화재와 경관에 대한 해설보다는 원효 8경의 각 지점을 탐방하고 국립공원 무등산에 자리한 보물같은 문화재를 따라 걸으면서 문화재 보물찾기 미션 등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 북구는 10월까지 원효사에서 전통 산사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예정이다.

가족 및 주민들은 북구 문화관광과(410-6617)와 북구 문화의 집(269-1420)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무더운 여름 속에서 전통 산사의 정취를 느끼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문

화재 보존을 넘어 지역 문화재와 주민들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효사에는 시 유형문화재 제7호 동부도와 제15호 만수사 범종, 시 기념물 제21호 제철유적, 시문화재

자료 제15호 풍암정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으며, 대웅전 맞은편 누각인 회암루에 오르면 가까이 있는 노송과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의상봉, 그 오른쪽에 우뚝 솟은 윤필봉, 멀리 정상인 천왕봉의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김종찬 기자



광주 북구는 인권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5기 주민인권학교'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주민인권학교' 참가자 모집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인권 활동가 양성

광주 북구는 오는 10일까지 인권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5기 주민인권학교'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민인권학교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으로 생활 속 인권준중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 인권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오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4주간 북구 보건소 5층 교육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영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오는 21일 첫 강의는 광주인권지기 '활짝'의 이경아 인권강사가 '노인 인권의 이해'를 주제로 시작하며, 28일에는 전진희 전남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에 대해 강의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인권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주민참여·민관협력 의제발굴 선정 등 논의

광주 북구가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지역사회보장증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북구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장이 4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한 사람도 소외 받지 않는',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의 특수성을 기초로 지역주민이 중심

이 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광주복지재단, 북구청,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복지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기초수요조사 및 주민 복지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계획수립에 참여할 주민 30명을 모집·선정했다.

오는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동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 공유와 함께 의제발굴·선정 및 세부실행계획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보건·문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점, 사업방향 등을 담아낼 방침이다.

한편 외부전문가로 박태영 대구대 교수, 전성남 동구시니어클럽 관장, 허숙민 광주복지재단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 주민교육 및 진행과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마을을 잘 아는 주민들로 촘촘한 인적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복지 체계를 구축해 소외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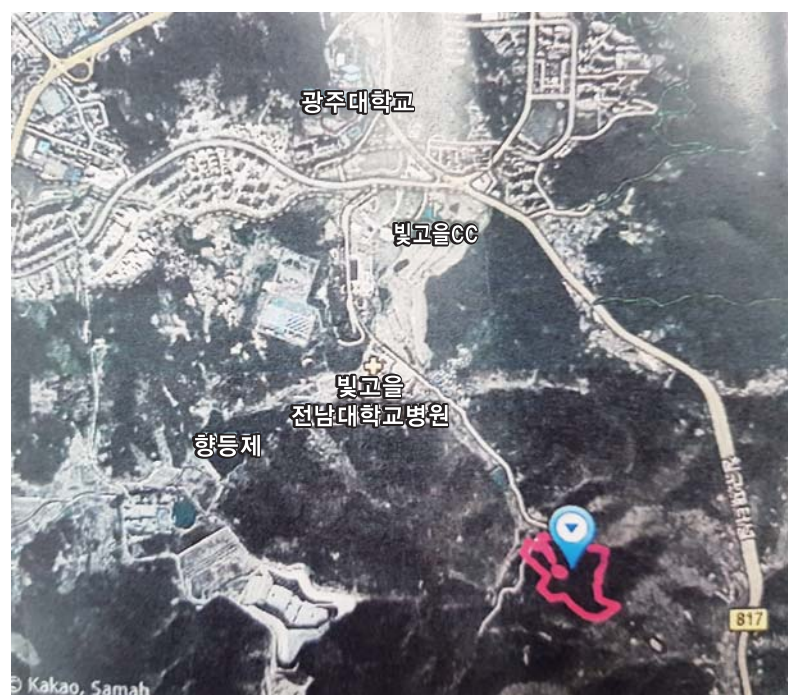
광주 북구는 신규·재심사 지정된 10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2차(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

선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사회적기업 10곳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총 79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북구는 신규 및 재선정된(예비)사회적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비 9억여원을 투입, 약정체결 기간인 1년 동안 참여 근로자 인건비 등을 연차별 지원비용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김종찬 기자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